



< 2019년 제1차 형사소송법 출제경향 분석 >

* 서론 - 1문제 (1번)

1.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수사 - 8문제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3번)

3. 체포와 구속 - 접견교통권
5.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BOX)
6.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7.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8. 압수·수색·검증 - 통신제한조치
9. 압수·수색·검증 - 압수·수색
10. 수사의 종결 - 재정신청
13. 압수·수색·검증 - 보석

* 공소제기 - 1문제 (11번)

11. 공소제기의 효과 - 공소장변경(BOX)

* 소송주체 및 소송이론 - 1문제 (2번)

2. 소송의 주체, 증거 - 진술거부권, 음주운전, 전문법칙

* 공판 - 3문제 (4번, 12번, 17번)

4. 공판 - 증거개시
12. 공판 - 국민참여재판
17. 공판 - 증인신문(BOX)

* 증거 - 3문제 (14번, 15번, 16번)

14. 증거 - 자백배제법칙
15. 증거 - 사진 및 영상녹화물
16. 증거 - 전문증거

* 재판 - 3문제 (18번, 19번, 20번)

18. 재판 - 종국재판
19. 상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0. 특별형사절차 - 약식명령

< 전체 20문제 : 실문 총 82개 >

* 판례 실문 - 62개

* 이론(조문) 실문 - 20개

* 최신판례 - 8번 ㉔ : 패킷감청

11번 ㉔ : 공동정범-방조범



< 2019년 제1차 형사소송법 총평 >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난이도 및 출제경향

이번 19년 1차 형사소송법 시험문제는 지난 18년 3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설문이 기본서와 강의에서 모두 언급되었던 설문이며, 박스문제도 3문제(불심검문, 공소장변경, 증인신문)에 불과하고 그 형태도 개수 문제보다는 O·X 선택형(조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체감난이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8년 3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쉽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강의를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남자는 90점 이상, 여자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체 평균 점수는 지난 시험과 비슷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서론 1문제, 수사 8문제, 공소제기 1문제, 소송주체 1문제, 공판 3문제, 증거 3문제, 재판 이후 3문제가 출제되었고, 전체 20문제 설문 총 82개 중 판례 설문이 62개, 이론(조문) 설문이 20개 출제되었고, 이 중 최신 판례(개정 법 포함)는 2문제 2개 설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 접견교통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최신판례가 많이 있었으며, 2018년도 최신판례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패킷감청, 공소장변경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 있어서 최신판례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므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2. 앞으로의 공부방향

최근 출제경향을 고려해볼 때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신판례 출제경향에 맞춰 최신판례에 대한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설문이 길어지고 기출설문이 아닌 설문들이 출제됨에 따라 기출문제를 단순 암기하는 공부보다는 기본을 철저히 암기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더 해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야”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이나 이해 부족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은 기본과 체계를 확실하게 잡는 공부가 더 필요하고, 단순 암기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은 반복을 통한 암기력 보충이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중요시되는 과목이니만큼 ‘반드시’ 처음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암기 위주의 공부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초 체계를 튼튼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가장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되는 만큼 기출문제 위주로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수험생들도 앞으로는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된 내용은 철저한 반복과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이를 정확하게 보충하는 방식의 공부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그동안 흘린 땀만큼 꼭 좋은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